

**The Reunified Korean Economy**

月刊

# 統一經濟

1995. 12 통권 제12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권 두 언 / 소련형 경제 시스템과 북한 경제의 연구 / 강명규 2

해외전문가 기고

북미간 핵 합의의 배경 / 제임스 커티스 4

## 시사특집

사회주의 경제특구 비교

- 북한의 경제특구: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 남궁영 18
- 경제특구와 중국 경제 발전 / 정영록 28
- 베트남 수출가공구·공단 현황과 발전 전망 / 안희완 36

이달의 초점

“남북 경협, 단속적(斷續的)이어서는 안된다” / 서성원 49

## 연구논단

- 남북한 경제체제 통합 방안 / 이종원, 김창권 54
-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 권오윤 70
- 남북 경제 협력 현황과 추진 방향 / 이호근 88
- 남북 관계의 게임 이론적 분석 / 김욱 98

인물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6) / 유영구 117

통일다리

화려해지는 의생활 / 주강현 125

# 소련형 경제 시스템과 북한 경제의 연구

강명규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가 북한 경제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할 때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통계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비밀이 많다는 북한 당국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데서 비롯되는 부득이한 난점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빈약한 자료에다 여러 가지 가공 작업을 한 추정치를 이용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얻어 낸 성장률이 라던가 1인당 국민소득이라던가 하는 몇 가지 거시 통계를 보고 북한 경제의 최근 실적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지금은 어느 정도 헤아리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지도자의 연설 속에서 통계를 찾아내어 그 기준도 알 수 없는 비율을 사용하면서 작업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시대는 이제 사라졌다”고 한 것은 영국의 소련 경제 전문가 알렉 노브 교수가 스탈린 사망 후인 1950년대 말에 실토한 말이다. 이 때부터 공개하기 시작한 소련의 가공(架空)적인 수치를 국제 기

준에 맞도록 가공(加工)해서 사용해 온 서방측의 추정치보다도, 소련 경제의 현실은 훨씬 열악했었다는 사실이 판명된지도 이미 오래다. 독일 베르린대학의 게르트 렐틴 교수도 필자가 통일 직전에 만났을 때는 “동독의 통계 자료는 과다해서 고민”이라고 하더니, 통일 후에는 “뚜껑을 열어 보니 현실 경제가 통계보다 훨씬 열악하다”고 실토한 적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통계의 공개도에 있어 아직도 스탈린 시대를 못 벗어나고 있는 북한 경제에 관해서 최근까지 김일성의 신년사 같은 데서 특유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수사 속에 감추어져 왔던 숫자들의 가치는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 못된다 하겠다. 우리가 북한 경제의 실체에 접근하는 데 있어 통계 수치에 못지 않게 중시해야 할 과제는 북한의 경제시 스태프와 그 작동 원리에 관한 철저한 이해다. 이 점에서 볼 때 우리의 북한 경제 연구는 아직 전문화의 수준에 미달이라 해도 무리가 아닌 줄 생각한다.

남한 경제의 상식을 준거로 삼는다거나 기껏해야 중앙 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라고 하는 피상적 잣대로 재 보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북한 경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경제에 관한 이론적·경험적 지식의 축적을 전문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에 관한 세계 학계의 연구는 이미 비교체제론의 단계를 벗어나 경제사(經濟史)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자식이 정리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 비추어 볼 때, 북한 경제는 이른바 ‘고전적 사회주의’ 또는 ‘소련형 경제’의 지구상 남아 있는 유일한 화석으로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나진·선봉 지역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등 제한적인 개방화의 시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북한 경제는 소련형 경제 시스템의 특질을 남김없이 공유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 북한 경제를 논한다는 것은 이같은 소련형 경제들의 시체 더미 속에서 같은 치사병에 걸려 가사(假死)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를 부검하는 것과도 같다. 이 마당에 혈압이 어땡고 열이 몇 도냐 하는 따위를 측정한다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응급 조치의 캄플주사를 논다 한들 그 효과는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러니 이 치사병의 근

본 원인을 찾아내어 그 병소(病巢)를 도려내는 길밖에 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더구나 이 병원체의 성질에 관해서는 이론적·경험적으로 이미 증명이 끝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같은 뜻에서 북한 경제가 냉전 종식 후의 대외 조건 악화라든가, 주체사상 고집이라든가, 저간의 정책 선택의 실패라든가, 또는 남북 대치라든가 하는 그 어떤 특수한 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조건을 악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설사 이같은 조건들이 개선되어 외부로부터 자본과 기술이 대량 투입되면 치유 가능한 병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북한 경제의 기본 체질은 소련형 경제 모형의 본태성 병원균을 항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체질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중앙 계획 당국이 실물 발란스를 작성할 때 부문별+지방별+기간별로 투입-산출의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생산의 최종 단위인 기업의 행동에 ‘톱니바퀴 효과’(ratchet effect)가 작용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본시부터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한다.